

‘사통팔달’ 일본인 마을 ‘덕지덕지’ 한국인 마을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7. 계획과 무계획의 ‘이중도시’ 목포



목포부가 1935년 발행한 목포부세일반에 게재된 목포각국공동거류지, 즉 목포시가지 지도. 도로 윤곽과 필지의 크기가 지금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일제의 남도 수탈 거점인 개항장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국도 1호선 목포~무안 구간은 남도 최초의 근대 시가지로 형성됐다.



일본인 자녀를 위한 목포심상고등소학교가 문을 연 것이 1898년 10월이다. 이는 광주보다 8~9년 앞선 시점으로, 목포는 일본인의 남도 진출 교두보였다.



목포항과 각국공동거류지 일부의 전경. 주로 일본인이 거주했던 공동거류지는 격자형 필지로 근대적으로 계획·구상됐으나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한국인 거주지는 부정형하게 난개발됐다.

목포의 개항은 곧 전라도의 식민지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조선정부 그리고 이어지는 대한제국이 끝까지 막아내려 했던 일제에 의한 목포의 개항은 ‘조선의 보고’인 전남의 착취와 수탈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만드는데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통치수단인 군대와 경찰,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선 민간 일본인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상하수도, 전기, 금융 등 편의시설이 놓이게 된다. 즉 전남의 식민지화와 근대화·도시화는 이 목포 개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개항 이전 조선정부의 자체적인 근대화 노력은 있었지만 열강들의 아귀다툼, 쇠락한 조선왕조 등이라는 여건 속에서 그것은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부산(1876)·원산(1879)·인천(1880)에 이어 7년 만에 강제 개항 방식이 아니라 조선정부가 칙령을 내려(일제와의 협약이 있기는 했지만) 개항했다는 점에서, 목포 개항이 조선정부의 자주적 조치라는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열강들의 상호 견제 속에서 들어서는 목포의 각국공동거류지는 결과적으로 일제가 주도하게 된다. 이 거류지 관련 국가 기록원의 자료는 ‘각국거류지관계취급서(1910)’와 ‘각국거류지에 관한 취조 서류(1910.12~1911.03)’ 등이 있다. 개항 준비작업을 위해 조선정부가 칙령 제33호로 무안에 감리서(조선 말기 개항장·개시장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를 설치한 것은 1897년 9월12일.

하루 뒤에 무안경무서, 그해 말 죽동에 무안우체사가 자리했고, 10월1일 개항과 동시에 목포해관이 들어서 영어와 한문으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말하자면 형식은 조선정부가 이끈 것처럼 돼 있다. 하지만 일본영사관은 개항과 동시에 과거 목포진 시절부터 자리했던 만호청에 들어섰으며, 이후 목포항의 개항과 각국공동거류지의 조성은 그들의 입맛대로 추진됐다. 러시아, 영국 등 주변 열강들이 별도의 영사관 설치 없이 사실상 이러한 일제의 조치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각국공동거류지의 배분에서도 드러난다. 모두 72만6024㎡에 걸쳐 지정된 거류지는 초기 공공기관 설치 면적으로 일제가 3만1351㎡, 러시아 1만9311㎡, 영국이 1만2475㎡를 나눠 소유하고 나머지는 경매에 붙였다. 1898년 2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4차례 경매에서 27만5293㎡가 팔려나갔는데, 이 가운데 93.5%가 일본인 소유였다.

개항 당시 목포의 외국인인 일본인 8명, 영국인과 중국인 각각 1명 등 모두 1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일본인의 진출은 크게 늘고

같은 도시 극과 극의 차별 지배

일본인, 세력 결집해 실권 장악

한국인, 묘지터로 쫓겨 난민생활

있었다. 1897년 말 206명이었던 일본인은 1902년 1045명, 1905년 20121명, 1907년 2851명 등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이렇게 목포에 발을 담은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1897년 계림장업단, 1898년 세화재, 1898년 9월1일 일본거류민회, 목포일본인 상업회의소 등을 결성하고 있다. 목포는 전국에서도 일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으며, 이들은 목포영사관과 한복속이 돼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한 거류지를 만들어갔다.

우선 목포 거류지는 인천과 함께 마한가지로 서해안에 위치, 바다를 바라보는 산기슭에 주요 공공들이 들어서고 이 주변을 고급 주택이 감싸는 구조로 형성됐다. 나머지는 영산강 하구, 리아스식 해안, 조수간만의 차 등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닷물 유입을 막고 해안에 벽을 설치해 매립하는 방식이었다. 해벽 설치 공사는 1898년 6월11일 9만5000원의 예산으로 거류지회가 착수해 1901년 완성됐다. 그러나 이후 붕괴사고로 1909년까지 보완공사가 계속됐고, 토지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갯벌 매립도 일제강점기 내내 이어졌다.

목포 거류지 측량은 조선 정부가 맡아 네덜란드 사람인 스테든에게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최초의 근대적 시가지계획이 수립됐다. 시가지도로의 폭을 8m, 10m, 12m, 15m의 4가지 종류로 구분했고, 각각 영사관, 세관, 공원, 도로부지 등을 제외한 택지를 갑(매립이 필요 없는 지대가 낮은 지역)·을(구릉지)·병(매립이 필요한 지역) 지구로 구분해 순차 경매했다. 구릉지 51%(34만2815㎡), 해안 32.2%(21만6854㎡), 평지 16.8%(11만2700㎡) 등으로 거류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서로 유달산, 남동으로 바다와 인접했던 조계지는 갯벌과 경사지, 평지를 시가지로 만들어가며 1913년 5월15일 호남선의 목포~학교 간 개통과 함께 준공된 목포역 방향, 즉 북쪽으로 뻗어갔다.

‘목포 각국 거류지 규칙’에는 거류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다. 부지의 최소분할면적을 500~1000㎡로 정하고, 도로의 폭은 역시 최소 8m 이상으로 했다. 가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건축하도록 했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건축규제도 포함돼 있다. 거류지회는 3가지 부류로 조직됐는데, 감리서 또는 그에 상당한 지위를 가진 한국관리, 지방 주재 영사, 등록지주의 선거에 의해 3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목포에는 일본 외에 외국영사가 없어 일본영사가 각국거류지 회장을 겸임하고 거류지회는 일본인만으로 운영됐다. 이 거류지회는 도로, 구거, 제방의 건설 및 운영과 같은 토목공사의 경영, 경찰의 설치 및 유지, 공공 우물 및 수도공사의 경영, 공공의 위생 및 풍기 유지를 위한 업무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했었다.

반면 각국거류지규칙에서 거류지 내에 한국인의 주택 및 묘지 설치를 금했기 때문에 각국거류지에는 외국인 거주했고, 필연적으로 조선인의 주거지역이 거류지 외곽의 구릉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개항으로 노동력 수요가 증대했고, 할벗었던 농민들은 목포로 유입됐다. 그들은 유달산 자락의 죽교동, 북교동 일대에 있던 공동묘지에 터를 잡았으며, 아무런 규칙이나 기반시설 설치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됐다. 따라서 길은 좁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도시설비도 갖추지 못했으며, 주택 면적은 극히 협소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도시 구조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며, 거류지 조성 과정에서 목포가 수 천년 간 간직했던 천혜의 자연 갯벌이 사라지고 해안선이 구축됐다.

남도에서 가장 먼저 일제의 침략과 강제병합 시도가 노골화된 목포에서는 1900년대 초 목포항의 부당 노임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인 인부의 항쟁이 무려 8차례나 계속됐고, 1908년에는 목포 앞바다에 의병이 출몰해 일본 어선을 습격하는 등 마찰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추1등**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